

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4월 19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.

< 복된 소식을 듣고 전하는 자의 축복 >

이사야 52:7 / 새찬송가 25 (통일 25) 면류관 가지고

1. 복음의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

하나님의 두 천사장 중 미카엘은 군대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. 마리아는 가브리엘로부터 예수 탄생을 예고 받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(눅1:46-50).

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던 시절 다니엘은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을 것이라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놓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이 와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곧 70이레(490년)에 대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(단9:18-23).

또 수년 후 고레스왕 3년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21일 기도했을 때도 가브리엘이 와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. 그런데 이때 가브리엘이 순탄히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. 사탄이 방해했기 때문입니다. 이때 미카엘 군대 천사장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습니다(단10:12-14).

이런 다니엘 같은 위대한 구약의 예언자들은 물론이고 가브리엘 같은 하늘의 천사들도 듣기를 흠모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'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'입니다(마 13:16,17), (벘전1:12).

2.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

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는 세례요한의 말은 외치는 소리였습니다(사40:3).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목소리가 높지 않아도 모든 세상이 앙망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(사42:1-4)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소리가 높지 않아도 세상 끝까지 전파됩니다(시19:1-4).

이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납니다(롬10:17).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, 우리를 죄와 정죄와 질병과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(사42:6,7).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여 모든 대적하는 이론들과 주장들을 다 파합니다(히4:12), (고후10:4,5).

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복됩니다(마13:14,15)!

우리는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판단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, 정욕 탐욕을 씻어낸 청결한 마음으로, 또 씨앗을 바라는 좋은 땅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, 더불어 마음을 둔하게 하는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(눅 21:34).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(마22:14).

나아가 참으로 복된 사람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.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며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(롬 10:13-15).

하나님은 이 귀한 일을 천사가 아니라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사람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. 즉 겉으로는 미련해 보여도 택하신 자녀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(고전1:21).

< 적용 & 실천 >

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있습니까?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가슴이 설레 입니까? 복음이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.